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外交部昆明移轉으로 佛支關係緊密化
駐支佛大使俄然暗躍

【香港十一日發同盟】第三期抗戰에드러간 國府의 地盤이되는것은 겨우雲南、貴州、四川、廣西、廣東의 西南五省에不過한데 蔣介石政權의 僻地遁入에 伴하야 今後中心으로될雲南은 從來佛領印度支那와密接한關係에잇서 佛國政府의 對支援助는 最近갑작이積極的一途를밟고잇는데 이와交換으로 [illegible]利獲得을劃策하고잇다 그런데國府를圍繞한諸外國의動向은 [illegible] 深甚한注意를拂하고잇는데 特히活潑한 動向을보이고 잇는것은 駐支佛國大使나쟈르氏로 同大使는 [illegible]河內에 向하야 印度支那總督과 會見하고 對支援助方針을 協議한後 香港經由漢口로 飛去하엿다가 一日當地에도라와 十日다시 廣東에서 余漢謀、吳鐵城과 會談하엿는데 兩三日滯在한後 再次 香港에 도라와가지고 飛行機로 漢口로向할 豫定이다 仄聞하면佛大使가 右廣東會談에 携行한 案件은、

一、雲南、廣西兩省間의 自動車道路擴張에伴한 西南運輸工事에對한 財政的援助問題
二、諒山鐵道의 廣西延長及 滇越鐵道의 四川에의 延長問題
三、雲南省의 鑛山採掘權獲得
四、雲南 貴州 四川 廣西와佛領印度支那와의 經濟聯絡의構成과 東京重工業施設과의 關聯條件樹立問題
五、雲南、緬甸間의交通路開通에 伴한 滇越鐵道의 使命問題

等 廣範圍에 亘한것으로 大體方針에 對하야는 이미 하이노에서 國府代表와 印度支那當局과의間에 諒解가 成立한 模樣으로 나쟈르氏 今回의 廣東及漢口行으로 國府側과의間에 具體的協議를 行하려는것이아닌가 보인다 어떠튼 이미 印度支那銀行 首腦와 植民地府의動向은 香港하노이를 中心으로最近 갑작이 活潑하게되며 나쟈르氏의 動靜과함께 今後支那를中心으로한 佛當局의 動向은深甚한注意를 惹起하엿다

社說
遭難漁船救濟規程
朝鮮水産會及各道水産會의快擧

一

朝鮮水産會에서는 八日의 總會에서 年年 遭難漁船이 多數임에 感하야 遭難漁船救濟規程을 決定하고 今年七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다 한다。實施要綱과 救濟規程에 對하야는 이미 昨紙 經濟面에 紹介한바와갓거니와 年平均 一千餘隻의 被害가 잇는 漁船에 對하야 救濟規程을 樹立한것은 漁民의救濟라는 人道的 見地로나 漁村經濟의 潤化라는 漁村政策으로나 適當한 方策이라 하다。

二

이제 實施要綱을 보면 朝鮮水産會及 各道水産會가 事業主體가되어 被害額의 三分의二에相當한 救濟金을 交附하되 그救濟金年額二十五萬圓은 道水産會員인 者로서 漁船을 使用하고 水産業에 從事하는 者들이 負擔하며 其金積立金으로서 年十萬圓은 國庫七萬五千圓과 昭和十三年度 道의補助費 七萬五千圓을 分納하므로써 이에 充當하며 昭和三十年度까지에는 二百五十萬圓에 達할것이므로 三十一年度부터는 基金을 積立치 안키로하엿스며 事務費는 따로 考究하기로되엿다。

三

그리고 救濟의 標準은 漁船이 不可抗力에 依하야 全損或은 沈沒하얏슬때、又는 行方不明이되어 六十日이 經過한때라야하며 救濟額은 漁船의 時價의 三分의二로하되 賠償又는 保險金을 바들때는 一部를 交附치 안을수도 잇스며 漁船을 他用途에 使用中 遭難된것은 度外視하기로 되엿다。

이規程의 適用이 朝鮮에 籍을둔것임은 勿論、總噸數 百噸以下임을 規程한것은 그것이 小漁船에 限한것임을 알수잇다。

이와가티 朝鮮水産會의 遭難漁船救濟規程은 小漁民의 遭難에 對한 救濟方法을 定한것으로서 매우 效果가 클것으로밋거니와 此際 吾人이 力說하고시픈것은 漁船에 限치안코 小規模의 運搬船에 對하야서도 이런救濟規程을 制定하라 함이다。大汽船等은 大槪大會社에 所屬되고따라 各各 保險에加入하야 設使 遭難하는 境遇가 잇드래도 그 被害를 補償할수가 잇지만 小荷物船 小旅客船等은 大槪小資本家 又는 自營의 것이므로 保險에 加入할 餘裕를 가지지 못하얏다。이런 小規模의 船舶일수록 救濟의 必要는 一層多大하니 國家又는 道로써 이것을 救濟함도 조흐나 平時水産會와가튼 組織體에서 이런規程을 制定하야 危難에 臨함은 該小運輸業을 爲해서나 漁村經濟를 潤澤케하는 點으로나 多大한 效果가 잇슬줄 밋는다。

夏節로부터 船舶의 往來가 一層頻繁하야지고 따라 遭難度數가 頻繁할것을 생각할때 一層이 救濟規程의 必要한것을 痛感하는 바다。當局及 當業者의 愼重한 考慮를 促하는바이다。

雜草中에서 前敵을 監視하는 我部隊

漢口死守決議코
武漢三鎭을保壘化

【上海十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漢口市民의 不安이激增하는中 武漢三鎭은 바야흐로一大要塞化하야 그軍事施設은 急速히 進展하야 大會戰前의 緊張한 空氣가 돌고잇다 蔣介石은同地의 重要性에 鑑하야 股肱이라고할 陳誠으로 하여금防備의全責任을 맛게하고 張發奎로하여금 이를補佐케하엿는데 陳、張兩人은 支那의 軍事上 實力者인데 이들을防備에當케하게된것은 蔣介石의 決意가 얼마나 重大한가를 窺知할수잇다 支那軍이 가장注意하고잇는것은 長江以南에의 日本軍의 進追에依하야 漢口는 [illegible] 四川省에의 [illegible] 하게되는 [illegible] 러이方面에 對한防禦陣地는 極히周到하다

漢口의混亂益甚 避難民激增으로

【上海十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國府의遷行撤去決定後의漢口의動搖는 形容키어려운바잇서 人力車 手車其他모든 機關을利用하야 西方南方으로 向하야 避難民이 [illegible]列을 지엇다 이避難民과 交換으로 約十萬의四川軍이 十一日前線에 赴하는途中漢口에 到着하엿기때문에 市內의混亂은 더욱甚化하엿다 確報에依하면 十日一日만 하여도漢口로去한避難民은 一萬에 [illegible]

民이이에 對하야 政府當局은二十萬元을 支出하야 一日一萬五千의 婦女子를 避難시킬計畫을 完了하야서 此等 避難民은 戰時救濟 委員會의 손으로 貴陽、桂林、昆明等의 各地에보낼것으로보인다 또在留外人은昨年十二月 이미 香港을 脫出하엿는데 英國人二百名 米國人二百名 獨逸人百八十名 白露人四百名 合計一千餘名이 殘留하야 外人에依하야 外人避難委員會도組織하야 危機를 脫出키爲하야 香港行의 列車를貸切하게로交涉中인데 殘留者를爲하야 自警團을 組織하야 漢口自衛의 途를 講究케되엿다

楊代理大使一行 十一日橫濱出帆

【橫濱電話同盟】敗戰의 故國을 爲하야 奮鬪하게도라가는 楊雲竹代理大使는 二等書記官朴定平同楊雲倫外五名의隨員과함께 十一日午前十一時지나 自動車로來着棧橋B號에繫留中인M카나다號를 탓다 船中에는 일즉留學時代의 友人서 [illegible] 國境을超越한 眞心의 態度를 [illegible] 北支新政府支持를聲明한 橫濱中華會館溫理事以下代表數名이 感慨無量한態度로 楊代理大使와 구든握手를하엿다 寫眞班의 希望에 應하야 甲板에나타난 後 楊代理大使에게 『日本을 떠나는感想』을問한즉

今番의引退는 決코閑職이나 停職이아니다 一時的事務停止에 不過하다 생각하면 許大使가 지난一月二十日命令에依하야 歸國하고나서 不足한館員을 大使館事務까지 取扱하야 微力을다해와다 歸國에來任한後로 一年九個月의 短時日이나 事務에忙殺하야 各方面人士와 充分히 接觸치못한것은 遺憾이다 歸國後는 生長해가는 日本을 바르게認識케하도록 努力할터이나 日本의 諸位도 꼭 新支那를 認識해주기바란다 [illegible] 日中兩國間關係를 [illegible] 하기爲하야는 서로 親合하는것이 根本的條件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熱잇는 態度로 말하면서 나의感想은 언제던지 變함이 업다 부데新聞을 通하야 日本國民과 나의諸先輩에게 傳하여주시요 라고 말하엿다 一行은 同船으로 正午出帆 香港까지가서 漢口 或은 重慶으로 向할터이다

"長期抗戰繼續은 支那側에有利!"
廣東省主席吳鐵城豪語

【香港十一日發同盟】연日의廣東爆擊으로 여러가지風說이 돌고잇는데 廣東當局의 內容을打診하고저 十一日同地香港[illegible]紙는 廣東省主席 吳鐵城을訪問하엿는바 吳는如左한豪語를하엿다한다

日本軍은 早晩間南支에올것이나 只今은오지는 못할것이다 日本의 飛行機가 頻頻廣東을爆擊하고잇다。目的은 人民의抗戰自信力을 動搖시킴에잇는데 그實 이壓迫은 오히려 支那內部의 團結을 促進함이 잇다 日本은 中央과廣東을 離間시키려고하고잇스나 이것은 그들의 常套手段으로서 不可能한것이다 支那가 萬若 各國의 物資를 더욱 買入하야 抵抗을 繼續하면 日本은大端히 窮해질것이다 日本은 物資의 欠乏으로 苦痛하고잇스므로 抗戰의繼續은 支那에 有利하다 (寫眞은 吳鐵城)

헐米國務長官
空爆非難意義를闡明

【華盛頓十一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十一日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國務省은最近의 空爆非難聲明의意義에對하야 如左히言明하엿다

非戰鬪人民의 爆擊에對한 米國政府의 非難은 空爆을行하는外國에對하야는 勿論이나同時에 米國의爆擊機製造業者에 對하여도行한것이다

國務省은 防備하지안흔非戰鬪人民의 空爆에使用할 爆擊機의販賣를獎勵하지안흐록 壓力을加하게될지도모른다 이에對하야記者團으로부터 [illegible] 國務省의 最近諸聲明은 直接米國의 飛行機製造業者에 對하야 發한것이냐 또는國務省은 [illegible] 質問하고도 [illegible] 은 國務省이 最近發表한 諸聲明에는 米國의 非戰鬪人民爆擊及이爆擊材料의 供給을 奬勵함을 非難하는立場을 堅持하는旨를 强調하엿다

그러면政府는將來米國製飛行機의外國販賣를 許可치안코 製造業者가 自己의顧客을 困難케하는것을 奬勵하려는가 하는 實問이 나왓는데 헐長官은

立場을 實行에 옴기기爲하야 무슨手段을 取하엿느냐 하는實問에 對하야 헐長官은 言明을 拒否하엿다

다만 政府는 將來에잇서서도 如前히 諸外國은 勿論 米國民及 飛行機製造業者에 對하여도 反復하야 言明할것이다 고運命에끄첫다 西班牙에對하야 飛行機의 販賣는 法律로써 禁止되여잇는現在事情에鑑하야 헐長官의 右言明은 直接日本을 對象으로하야 逆한것이라고보인다

人民委員會副議長
陰謀嫌疑로被逮

【일쏘十一日發同盟】十一日 알려진바에依하면 [illegible] 莫斯科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人民委員會副議長 메쥬라우크氏는 反革命陰謀의 嫌疑로 蘇聯官憲의 手中에 逮捕되엿다 이에 依하야 人民委員會副議長의 職으로부터 [illegible]、코시올兩氏에뒤이어 二人째의 犧牲者를 내엿셈이다

쳬코市町村會選擧 平穩裡에終幕豫想

【프라하十一日發同盟】쳬코市町村會最終選擧를 今十二日에 압두고 쳬코國內는 非常한 緊張中에 차이엿는데 베네슈大統領은 十一日午前 再次歸國한 駐佛쳬코公使 프레틴·오스스키氏를 招致하고 호자首相도 加하야 오스스키公使의 現地報告를 基礎로 주데텐獨逸人問題에對한 佛國政府의 動向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베네슈大統領은 繼續하야 伯林으로부터 歸國한 駐獨쳬코公使 보이테지氏를 招致하고 同樣으로 獨逸側態度에 對하야 協議를遂하엿다 政府當局의 努力에依하야 주데텐地方及國內各地方은 자못平穩하야 現在에는 最初選擧當時와가튼 緊迫한 空氣는보이지안는다

議會制度審議會
第一回總會는中旬頃에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懸案의 議會制度審議會를 創設하고 去十日右官制를 公布하는 同時에 水野總裁以下 委員을 任命하야 마침내 具體的準備에 들어갓는바 審議會는 [illegible] 進하기로되여 一兩日中에 政府側만의幹事會를 開한後 十六、十七日頃 第一回總會를 開催하고 水野總裁는 目下政府와 諸般協議中이다 그러데 初總會는먼저 近衛首相으로부터 議會制度審議會設置에 至한經過를 述하야 審議會의 目的達成에 對하야 委員의協力을求한後 綜括的諮問案으로서

一、貴族院制度 議院制度 選擧制度改正에關한 意見如何

를提案할 方針이다 따러審議會는 右諮問에 對하야 다서一二回總會를 續行하야 審議의大綱을 決定한後 議院制度、貴族院制度、選擧制度의 三部會의 特別委員을 任命하야 各各具體問題를檢討할터인데 三制度가 모두 歷代內閣이 손을대이지못하엿든 難問題이만치 極히델리케 [illegible] 野總裁도 그實現에는 積極的決意를 가지고잇스므로 審議會의 運用은 相當活潑할것이라고보이어 늦어도 今秋十一月까지에는 成案을어들것이라 한다

滿獨通商航海條約 今月中에調印乎

【伯林十一日發同盟】滿獨兩國政府間에서 締結交涉이 進行되는 滿獨通商航海條約은 늦어도 今月中에 伯林에서 調印될 模樣으로 新條約의 成立에따라 一九三六年成立된 滿獨經濟協定은廢棄될것인데 新條約에는 獨逸側의 希望을 어어 獨逸商品의 對滿輸出增加를 規定한條項이挿入되엿다고한다

最高方針決定할
五相會議는今週初에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新事態에對處하고저帝國의 最高方針을 協議決定하기爲하야 今週初近衛首相을 中心으로外、藏、陸、海의五相會議를開하고 事變處理의根本的方針과 對支中央機關設置問題를 中心으로하야 戰後經營의 全體的方策에 關하야 隔意없는 意見을 交換하기로 되엿는데 十二日午後六時 近衛首相은 荻窪別邸에 板垣陸相을 訪問하고 五相會議의 中心議題에 關하야 外交財政各部門에關한 陸軍側의 意向을 傳하는同時에 [illegible] 意見을 交換하기로 되엿다 右近衛、板垣會見은 徐州陷落後開封이 繼續的으로 陷落하야 蔣政權의 漢口放棄도 바야흐로 時間問題로되엿는 이때인만큼 五相會議의 動向을 決定할것이라고 極히注目되고잇다

健康保險法施行令 二十日頃에公布

【東京電話同盟】我國現下의 社會情勢에鑑하야 農山漁村의 住民其他一般國民에對하야 健康保險制度를確立 國民의健康을 保持增進하고 아울러國民體位向上에 資하려는 目的下에 第七十三議會의 協贊을어든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令及 同法委員會規則委員旅費規則의 三勅令案은 일찍기 厚生省法令審議會에서審議中이든바 요사이審議를마치스므로 十四日法制局에回付 十七日閣議에附議決定한後 二十日頃公布키로되엿다 厚生省에서는 實施期日은 七月一日豫定인데 右公布에伴하야 保險院社會保險局內에一課를新設하야 現國民健康保險主任 事務官 石原武二氏가初代課長에任命되고 課의名稱은『國民健康保險課』라고 하기로 內定되엿다 그리고 簡易生命保險法改正法律의施行期日은 十月一日豫定인데 時局에鑑하야 施行期를대겨올리자는 要望이만흠으로同法의 施行手續準備를 急히하야 八月中에는 準備를마칠模樣이다。

八面鋒

◇ 京城의 電話값시 떠러젓다하드래도 八、九百圓을 不下。
◇ 日本全國을 通하야 이런 高價의 電話料는 드물다고。
◇ 米國서는 五弗乃至 十弗의 架設料만 내면 卽時 通話된다는것과는 比較가 안되어。
◇ 今番 八百餘臺의 新設이 잇다하드래도 電話料는 五、六分의 低落밧게 안되리라고。
◇ 三百圓을 내고 架設하면 八九百圓을 바드니 不必要한사람들도 장사로 申込者가 多數。
◇ 이 弊害를 遞信當局이 모를바 아니지만 아즉것 電話가 緩和되지 안흠은 實로痛嘆할일。
◇ 當局의 劃時期的 對策은無乎。
◇ 來十四日 新人音樂家를 모아 音樂會 開催。
◇ 그들의 압길에 光明이 잇거라。
◇ 又兒童이어、社會人이어 오서서 그前途를 祝福하랏。

今日本紙四面

陸軍南政務官留任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의 就任에 伴하야 [illegible]政務官은 그進退를 板垣陸相의 意向에依하야 決하기로 되엿든바 陸相의 希望에依하야 從來와가티 在任하기로 決定하엿다

世界週史

五相會議設定

近衛首相은 池田、宇垣、荒木、板垣等 四中心閣僚를 마지하야 內閣改造에 成功하고 事變第三期戰에 臨하는 國內體制를 一層强化하기爲하야 首相을 中心으로 藏相、外相、陸相、海相의 五相會議를 組織하고 政戰兩略의 萬全을期키로되엿다

廣東爆擊續行聲明

[illegible]

第三國船避難 各國에通告

[illegible]

國府移轉說

[illegible]

支那共産黨首腦復籍

[illegible]

"資源開發이急務"
大谷拓相咸興視察談

【咸興에서 本社特派員 宋洛濱】大谷拓相은 十一日午後十一時十七分 咸興驛着列車로 安着하얏다 投日旅館에서 一泊한後 十二日午前八時 咸南道廳에서 約二十分間新聞記者團과 會見한結果 大谷拓相은 左와如히 말하얏다

咸南道는 地下資源이 만흔고로 資源을開發하는것이 國民으로서의 義務이다 日本資源은 鑛物이不足한고로 官民一致하야 이것을 開發하는것이 急務이다 咸中鐵道는 順序에依하야 總督府의 諒解를 어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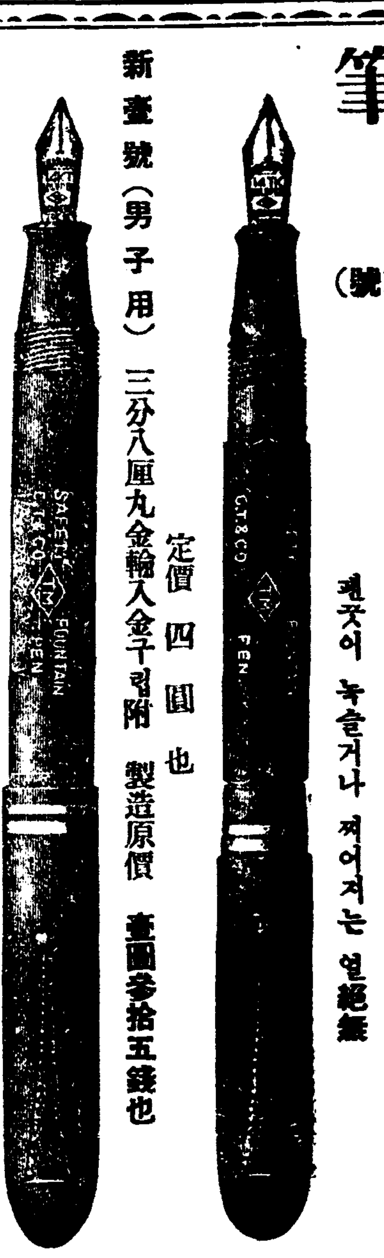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으로 咸興有志數名이 咸中鐵道敷設에 對하야 陳情한바이잇섯다 十二日午前八時二十分 咸興發自動車로 本宮、興南等工場地帶를 視察한後 同日十二時三十一分 咸興驛發列車로 京城을向하야 出發하얏다

日曜氣配

▲期米 産地의 頑强에 依然押目買氣强手堅 氣配不變强含
▲株式 時局豫想困難에 氣迷深刻保合材料待로 氣配不變

大新	八二、五〇
東新	一五〇、〇〇
鐘紡	二五〇、八〇
滿重	八〇、〇〇

セフティ萬年筆
▶實物宣傳特賣◀
【世界的大發明品】
(新案登錄第一〇七九六二號)
▼原價投賣奉仕 (製造元直接責任販賣)
本品은近代科學의精粹로된世界的高級金頭萬年筆이다
一、特許合理金계을硝酸試驗한結果何等損傷을認定할수업다는것이證明되엿다
一、조히와의 接觸이極히圓滑해서 絶對로磨滅되지안는다
一、本品彈力及잉크의 流出은 金에比해서 絶對的으로 優秀하다
一、軸은 高級에보나이드로서 永久堅牢不燃性이다
이제야 合理金萬年筆時代 K14 (十四金을絶對로不要함)
미끄러지는듯 쓰기조코 堅牢하여 늘어지거나 적어지는 일絶無
新壹號(男子用) 三分八厘丸金輪入金구럼附 製造原價 壹圓參拾五錢也 定價 四圓也
新貳號(男女兼用) 三分丸金輪入金구럼附 製造原價 九拾五錢也 定價 參圓也
東洋屈指의近代的大工場
弊商會化學萬年筆工場作成セフティ(五個年保險證付)
右高級萬年筆、二種各三萬本을限하고 朝鮮民衆에게宣傳키爲하야 定價參圓四圓嚴守之品特別製造正原價(스포이도及使用說明書化粧函奉仕添付)로 特賣、萬一途中破損又는 不滿할때는 返金 혹은取替해드립니다(品質本位責任販賣)
諸官省·諸學校用達
(團體註文六本에每一本式無料奉仕)
送料關係上註文은될수잇는대로先金、先金註文은送料奉仕、葉書請求時면代金引換으로도發送함
東京市淺草區花川戶 (東武鐵道雷門北口際)
スイツル貿易商會
セフテイ宣傳部滿鮮課
電話(代表)淺草(84)七七二五番
振替口座 東京三〇二二一番



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見本無代進呈 京城鍾路二丁目一四四 毒劇藥改正 朝鮮藥業研究社

釣竿とテグス
改良四本繼十尺二十五錢ヨリ
黑竹元四本繼二間五十五錢ヨリ
蚊頭針大小數百種其他
釣具用品全般在庫豐富
釣具百貨及投網
麻絲製投網 四分目 五分目 二〇、〇〇 一八、五〇
網絲、浮子、手網、叉網、柿澁一式
小賣型錄 卸賣商報 呈上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久 網久商店
電話本局六二五 二七〇六番 振替京城二三

嬉しいお知らせ
洋裁手藝면뭣이든지알게되는
月刊『洋裁講習錄』見本과 洋裁의研究 二個月分無代進呈 (葉書로請求하시압)
就職의防禦에도實用되는 家庭에안저서 通學과同等의實力을엇게되고 卒業證書授與其他大特典이잇습니다
東京牛込區河原町 東京高等技藝學校
洋裁書를시작하시는 通學하면서直接배우시려는분에게實費案內書를 送呈

毒藥大學總長 天六病院長 醫學博士 高木高 發見創製
무릉病新藥
▲副作用업合
▲文獻贈呈
▲自宅治療可
▲注射外內服錠劑 ヒドノコール
▲本病이지금까지不治엿든理由
今日까지本病에對하야世界의醫師는 大風子油以外에는絶對로適藥이 업섯다 그러나大風子油中에는 有效成分이極히微量으로含有함을뿐아니라大部分은有害한無效成分이인故로治癒가아니되는것은當然한일이다。
▲本病이不治가아닌理由
ヒドノコール 의完成을보게되엿스므로今後絶對不治가안이다 有効成分만을分離抽出하고 無効有害成分을除去하고 製品의理由로
▲當研究所의자랑과其使命
米國政府는國營으로미ー니쌔博士가이것을製劑하고 國立가리히癩病院에서多數의本病患者를全治退院식히고잇다 日本에서는當研究所가 이것을製造하고무료로患者들한테同胞에게提供함
大阪市北區大融寺町
天六病院附屬
發賣元 高木化學研究所 ドクトル 高木 中醫

巡査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卒業에依하야合格者續出하며 特典으로는鮮人巡查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三二〇番)

京城府仁寺町二十八番地 (寺洞四街)
內科 小兒科
入院室完備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カゴメ ケチヤツプ
和食 洋食
모든料理에처서 맛잇게잡수십시요!
滋養豐富한 トマトの調味料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名古屋市外上野村

포켓트 가방……어데나 넘키조흔 流線型!
ドウカス 寿ゞ一屋ドウカス
菓子店에잇고 ... 니다

今年農形豊作前奏曲!

한울의고마운膳物 "農夫의마음"은裕足

知時의黃金雨、全道에沛然

비가만히와서 수해를입기쉽고 또너무가무러서 한재에 조를리기 잘하는 조선전도에 작년에는 천재의덕을입어 농형(農形)이 대풍을 이루어서 어려운농촌이 저윽이 수미를폇섯는데금년의 시절이도한 어찌될까가여시 농촌의 큰관심꺼리로 되여잇다

이번 맥작(麥作)은 춘한(春旱)이심하고 또충우의 피해가잇서 흉작을 면치못하게되엿스나마 이잘되지안흔 보리농사보다도 농촌의 희망은 이앙기(移秧期)에잇는 금년의 벼농사에한갓 달려잇게되며 그동안 못자리를 순조롭게낼수잇도록 비를기다려 마지안헛섯는데 십일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단비가각지에 흡족하야 모심기에 심상으로 되엿다 이번비는 지리하게 끄러서 장마비로 계속되지안는한 일적천금(一滴千金)의황금우가 될것으로 각지농촌의농사아비들은 괭이메고 논드렁에나아가서 물꼬를터노코잇다 『아아야 시절이 조흘세면엇이것다 편케하라』 이번비가금년의 풍년을 점치하는하늘의고마운 선물이되기를 바라고비는것이 전조선농촌의 마음이다

江陵에大雨

春旱氣味完全解消

【江陵支局特電】 십일 저녁때부터 이튿날밤까지 나린일적천금의단비는 흡족이 미란인데 이비는 함경남북도 경기도 강원도일대에 고루고루나리는 가위 황금우(黃金雨)이다 그런데 강원도일대에는 그동안 비가부족하야 모내기에다소 영향을밧고잇든바 이번비로하야 이런근심도 완전히해소되엿다

파리잡는藥에 젓먹이가죽어

파리약에 사람이 죽엇다— 시내신당정(新堂町)십칠번지의이십삼호 어연수(李延洙)의 륙재딸 영자(英子)라는 한살된애가 원인불명의 변사를한일이잇서 그사인에 의심되는점이잇다하야 소관동대문서에서는 그후 계속조사중이던바 십이일에 이르러 시체해부의결과로 비로소 죽은원인은 죽기전날밤에 그어머니가 방에다 뿌리고 잔 파리잡는약 『호마큐라』로 말미암은 와사(瓦斯)중독으로 판명되엿다한다

人之道敎祖等七名公判廻付

【大阪同盟】 일즉이 세상을 놀라게하든 요교(妖敎) 『히도노미찌』(人의道)에대하야는 소화십일년사월오일에 제일회검거를 한이래 대판부 경찰부특고과(大阪府警察部特高課)에서 전교조 어목덕일(御木德一)(六七)교조 어목덕근(御木德近)(三四)이하 간부다수관계자들을 취조하엿는데 그결과 중심인물인 교조부자이하 십륙명을 대판 지방검사국(大阪地方檢事局)의 삼목(三木)(?)승산(勝山)전굴(前堀)검사들의손으로 불경(不敬)폭행(暴行)독직(瀆職)위증(僞證)등의 죄명하에 기소(起訴)하야 예심으로 회부하엿든중 십이일오전구시에

△大阪市住吉區濱口町四四二 人道敎團御敎祖 御木德一(六七)
布施市永和町三丁目五九 同敎團准祖 御木德近(三四)
同柏田一〇七八 同敎團外事課長 加藤[illegible](五〇)
同元布施町長(現布施市長) [illegible]川正二(四八)
同愛屋一四七三 元[illegible]長 澤村三[illegible]男(四一)
元[illegible]部長 高等主任 [illegible]本武[illegible](四[illegible])
元國[illegible]學係監督 上野[illegible]一(四[illegible])

동 이상칠명에대한 예심을종결하고 강간(强姦)외설(猥褻)독직(瀆職)[illegible]의불미한죄명에의하야 각각공판(公判)청구의수속을하엿다 그리고 일단예공한 불경죄에대한것은 수일후 예심종결되여공판이 될예정이라한다

臨迫한新人音樂會

旋風的人氣! 故鄕樂壇의野心的進軍

曲目과出演者

一、피아노 (梨專音樂科) 李慶熙孃
1、토로이카 챠이코프스키作
2、練習協奏曲 作曲三六番 막드웰作

一、쏘프라노 (武藏野音樂) 李觀玉孃
1、뻿노래 휘델리作
2、마리네의노래 (歌劇夢遊病中에서) 베리니作

一、바요린 (中野音樂) 金東振君
協奏曲D長調第一樂章 알레그로 金東振作

一、쏘프라노 (梨專音樂科) 崔永愛孃
카로노메 (리고레토中에서) 베르디作

一、바쓰·바리톤 (日本高等音樂) 金炯魯君
1、일허진靈魂 (歌劇 시몬도아베그라中에서) 베르디作
2、奴僕에게빼앗긴幸福 (歌劇피가로의結婚中에서) 모찰트作

一、쏘프라노 (帝國音樂) 吳敬心孃
1、노래에산다 (歌劇 토스카中에서) 푸치니作
2、어머니도 아시는바와가티 (歌劇카바레리아루스티카나中에서) 마스카니作

一、테너 (東洋音樂) 李海男君
1、師의恩 李尙俊作
2、꼿노래 (歌劇 칼멘中에서) 비제作

一、쏘프라노 (武藏野音樂) 李順明孃
1、自由射手 베버作
2、레오노래의멜로듸 (歌劇 運命의힘에서) 베르디作

一、피아노 (武藏野音樂) 金信德孃
協奏曲 B變調 作品一〇番 베ー토ー벤作

一、테너 (帝國音樂) 李範俊君
1、天使의糧食 프랑크作
2、祈禱 토스티作

—(以上 無順)—

時日 六月十四日午後八時
場所 於府民館大講堂
入場料 均一五十錢

★寫眞(右上으로부터) 金東振·吳敬心·崔永愛 李慶熙·李海男
★寫眞(左上으로부터) 金炯魯·李觀玉·金信德 李順明·李範俊 諸氏

主催 朝鮮日報社

戰時下의婦人報國 二萬新女性을動員

今日京城中等學校同窓會聯盟結成式盛況

千五百名會員一堂에

장기건설에 부인보국기관으로 탄생하는경성여자 중등학교동창회연맹(京城女子中等學校同窓會聯盟)의 결성식은 예정과가티십이일 오전십시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회원일천오백여명의 출석으로 개최하얏다 제이고등여학교 출신삼본녀사(三本女史)의개회사가잇슨후 순서에의하야 국가합창과 황거요배(皇居遙拜)가잇섯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출신 손정규(孫貞圭)씨의 식사가잇슨다음 총독대리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 현하비상시국에 부인동원의 긴급필요를고조하야 이만명졸업생을 격려하는 일장의 훈화가잇섯다 그리고 다시계속하야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高)출신 오일순(吳一順)여사의 인도로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제송(齊誦)이잇슨후 제일고등녀학교출신 성대녀사(城代女史)의 선언문낭독이잇섯스며 감자(甘蔗)경기도지사 좌백(佐伯)경성부윤양씨의 축사가잇슨후 삼본녀사의 폐회사로 막을다첫스나 때는오전십일시반경이엿다 (사진은 연맹결성식장과대야정무총감의 훈화광경)

宣言

現下非常時局에處하는 國民精神總動員의秋에當하야 銃後의婦人으로서 我等各同窓會員은 內鮮一體協力一致하야 右事項을實行하기로한다

一、敬神崇祖의念을養하야 國體의本義에徹하고 子女의敎養과 體位의向上에努力하야 齊家의實을擧할것
二、資源을愛護하고 消費를節約하야 勤儉貯蓄을 勵行하야 婦人報國의 實을擧할것
三、長期交戰을 覺悟하고 心身을 鍛鍊하야 困苦缺乏에忍耐하야 出征將士에게 後顧의憂가업도록할것

右宣言함
昭和十三年六月十二日
京城女子中等學校同窓會聯盟

航空燈臺獻納式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에서는 이번 공비일만오천원의항공등대(航空燈臺)일기를 체신국에 헌납하게되여 그항공등대의공사가 준공되엿스므로 십일일오후한시부터 경성비행장에서그헌납식(獻納式)을 거행하엿다 때마침 여름비가 줄기차게 나리는데도 불구하고 남(南)총독대야(大野)정무총감 이궁(二宮)헌병사령관 산전(山田) 체신국장 감자(甘蔗)지사 좌백(佐伯)부윤 박영철(朴榮喆)상은두취 삼(森)조선우선사장등 관민다수가 열석하야 수발(修祓)로부터 식을진행하야 삼조선우선사장이 헌납사를하고 산전체신국장이 수납서(受納書)를 교부한다음 감자지사의 축사등이 잇슨후 동오후두시경에 자못성대하게 식을마첫다 이헌납식이 끗난다음 경성비행장에서는 제국비행협회주최로 『글라이더ー』의공개비행이 잇섯스며 모형비행기경기대회는 비가와서 연기되엿다

宗敎看板을惡用 愚氓數千名詐欺

河東日蓮宗布敎所長等十八名

慶南警察部引致取調

【慶南支社電話】 경남경찰부고등과에서는 어떤종교단체의 모종의단서를 어더가지고 표면으로는 종교의간판을걸고 이면으로는 무지한농민을 속이어 대사기를 감행하고잇는 사건을 탐지하야 극비밀리에 수사를하여 오든중 지난팔일에 고등과 일하(日下)경부보외 형사두명이하동군하동읍(河東郡河東邑)에 출동하야 읍내에잇는 일련종교(日蓮宗敎)포교소에서 소장 서백일(徐百一)(五〇)을 인치하야 엄중취조를 한결과 그자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표면으로는 일련종교 포교소라는 간판을 자택에걸고 무지한 농민을 꾀어 드리는한편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바더 년전에 해산한 보천교신도를 중심으로 질병, 또는 소원성취를 하게해준다고 수천명으로부터 약오만오천여원을 편취한사실이 탄로되어 십일일밤까지 전기소장외에 련루자 십칠명을인치하야 엄중한취조를 하는중인데 사건은 아프로 더욱 확대될모양이다

移民計畫再檢討

廿一、二兩日에協議會開催

총독부외무부에서는 오는이십일, 이양일동안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각도이민사무담임자회의를열고 소화십이년부터 이십사년까지 십오개년동안 조선농민십오만호만주이민계획에대하야 협의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인즉 이미과거이개년간실시한 통제자유이민 실적에비취어 전기계획에대하야 재검토할것을 중심으로전반적 이민 사무에관하야 자세협의를 행할터이다

參拜뻐스에 學生은拒絕

매월륙일 애국일(愛國日)에 조선신궁(朝鮮神宮)에 참배하는남녀학생의수효는 팔만여명이나된다는데 이때문에 신궁아페서신군내경까지에 운전하는 경전(京電)뻐스는 자연이 남만은 매양초만원을 일우게되여 교통사고를 이르킬 염려도 업지안커니와 남녀학생이 좁은 뻐쓰안에 빽빽이끼여서 가치타게되는 판게상 풍기상 재미적은 일이 생기게되는때가만허 이폐해를 우려한 경기도보도련맹(保導聯盟)에서는 얼마전부터 경전당국과 상의하야 얼마안되는 거리이니만치여학생만 태우기로하되 중등이상의 남학생은 일제히 도보로 참배하도록하여 우금것 실행해보앗스나 학교당국의 엄명이잇슴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의 눈을피해가면서 여전히 여학생들만 타기로되여잇는 뻐스에 타려는 남학생이 적지안흠으로 이때문에 머리를앓코잇든 보도련맹에서는 종래의 방침에 수정을가하야금후로는 남녀를 불론하고 학생은 전부 도보로만 참배케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全延專戰地向發

今日·盛大한餞送裡에

全日本蹴球界의 王座를目標로 오는十八、九兩日間 東京서열리는 第四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 出戰하는 全延專蹴球團一行十六名은 今十二日午後二時十分 京城驛發急行列車로 監督林炳赫氏引率下에 戰地로向하엿다 驛頭에는同校正副校長을 비롯하야 朝鮮蹴球協會關係者며 더욱이 全普專軍等 多數同窓들의 餞送이잇섯는데 全普專의主將 金容植君이 戰友全延專의主將 鄭龍洙君의손을 굿게잡고 "우리는 두번이나 가서 뜻을이루지못햇스나 여러분은 이번機會에 우리의 雪辱을 해주는 同時에 蹴球朝鮮의 勇名을 떨치고 또이驛頭에서반가히 맛나자"는 激勵의말은 오직스포ー츠精神의 發露가 아니면 볼수업는 光景이엿다 一行의 東京宿所는 靑山靑年館이라한다

(寫眞은 [illegible])

中等蹴球豫選

大每主催의 第二十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朝鮮豫選의 中央地域豫選大會는 來十五日、十六、十七의 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十二日午後一時半에 各校對陣을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그리고 同大會敗者復活戰은 來二十二、二十三、二十四의 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그런데 全日本大會規定은 大正八年四月二日以後出生者에 限하야 出場할수잇슴으로 이번豫選戰에優勝한팀은 前記規定에準하야 出場케되엿다한다

▲十五日=入場式 午後零時半
第一回戰(十五日午後一時)
A、普成中學對延禧學校
B、靑年會學校對培材中學
C、東星商業對中東學校
D、養正中學對協成實業
準決勝(十六日午後四時半)
E、A의勝者對B의勝者
F、C의勝者對D의勝者
決勝戰(十七日午後五時)
E의勝者對F의勝者

三醫專陸上對抗戰

第三回朝鮮三醫專學陸上競技大會는 京城、平壤、大邱等의 三醫專으로부터 一種目에各二名式選手가參加하기로하며 十九日午後一時부터 平壤醫專校庭에서 擧行하기로되엿스며 來年에는 京城에서 擧行하기로 決定되엿다 그리고 種目은 다음과가다

▲트랙部=百米、四百米、千五百米、五千米、百十米高障碍、幅跳
▲필ー드部=投圓盤、投槍、走高跳、走幅跳

延專싸이클部 東京에進出

오는十九日 東京戶山學校運動場에서열리는 全日本學生自轉車競技大會에 延專싸이클部로부터 斯界의 麗兒李潤白、徐廷萬兩君을 派遣하기로되여 十四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發 渡東할터이라한다 學生代表로서 東京에進出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庭球豫選延期

京日主催 第十五回 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 中央豫選大會는十二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擧行할豫定이던바 雨天으로하야 來十九日 午前九時부터 黃金町殖銀코ー트와 朝銀코ー트에서 열기로 日程을變更하엿다

明日의運動

▲籠球=朝鮮籠球協會主催 本社後援 第八回中等學校 及俱樂部籠球聯盟第一日 午後三時 安國町徽文小學校코ー트(場內整理費十錢均一)◇學生籠球聯盟主催 夏期리ー그…法專對普專B 世專對大學A 午後四時 大學球場(觀覽無料)
▲庭球=安井氏歡迎庭球戰 午後四時半 殖銀코ー트(觀覽無料)
▲蹴球=高專蹴球리ー그…世專對醫專 午後五時 延專球場(觀覽無料)

色鉛筆

부내 공, 사립여자중등학교 졸업생으로 조직되는 여자중등학교 동창회연맹결성식이 십이일 부민관에서 거행되엿다 ▲시국관계가 아니라도 가정치지에잇는 그들로서 회협친목의 기관을 조직하는것은 필요한것이롯시에 의의가 또한 기픈것이다 ▲이제색여별로 오래어친한하게 동여맹의 장래를축복한다 ▲결성식장에 모힌 약일천오백명의 졸업생중에는 어머니와 딸가든이들이 태반이다 ▲조선에 신교육실시가 엇그제가튼데 벌서어려게 노인졸업생이잇스니 인생도 무상하거니와 세월도 무상하다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二〇分 어린이科學 趙福成▲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朱鍾宣▲八時 唱劇調 趙錦玉 鼓手 韓成俊▲八時三〇分(東)첼로獨奏 小澤弘 피아노伴奏 黑澤愛子▲八時五〇分 野談 崔汝成▲九時一五分 大琴獨奏 金永根▲一〇時一〇分 風習講座 西村眞太郎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六時二五分(東)講演▲七時三〇分 義太夫 夏祭▲八時(大)日曜演藝▲八時二〇分(東)첼로▲八時五〇分(東)小說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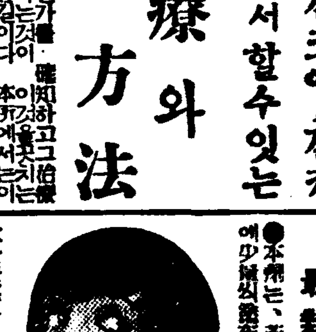
▲六月十三日(月曜)陰五月十六日 ▲干支 丙子
▲日出 五時十一分 ▲日入 七時五十五分 ▲日南中 十二時三十三分 ▲晝間 十四時四十三分 ▲月出 二十時五分 ▲月入 五時十七分 ▲滿潮(仁川)五時四十五分과 十七時四十分

코나쁜사람
手術하잔코아프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蓄膿症手術의圖)

코가막히고 맑은콧물과 누런콧물이 나오고 냄새를모르며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쉬고 ... [illegible]
가정에서 할수잇는 治療法을 알기쉽게 說明한 冊子를 無代進呈하니 곳申込하라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陰萎·勃○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專門博士有效證明
局○塗布藥 最新發明 セーブレピン



●本劑는、芳香性크림狀으로 ... [illegible]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發育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價格) 二瓦入 五〇瓦入 百瓦入
東京市靑山 合資會社 天醫堂
(代理店)京城 木村藥房 森田藥房 一木藥房 日本賣藥會社 新井藥房 藤田藥房

懸案解決의妙策은 擧府一致邁進而已

大鎭南浦建設案을再檢討한 官民合同懇談會經過

【鎭南浦】진남포의 중대현안을 조선후 저지 진남포부당국 상공회 의소 대진남포건설기성회등 세 단체 공동주최인 부민회를 대간 담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오 후세시부터 진남포 공회당에서 열리엇다 문제가 문제인지만큼 관 공서와 은행, 회사대표를 비롯 하여 공직자등 백여명이 참석 하엿는데 면부부윤의 개회인사 가잇슨후 방빙제(防氷堤)축조안 에대하야간기해군대좌의 조사보 고와 석천리사로부터 진남포항 어 조선사대무역항중에 하나인 에 불구하고 이제 각항의 구 축항(築港)을보면 부산항가 매우 육천이에 대진남포한은 겨우일원 최상될전바가 투자되지 못하한 심한 현상이라는 보고며 기성회 측에서 일년가량동경과보고등이 잇슨후 장시간에궁하여 겨의업 는 의견교환이잇슨다음 결론으 로는 육만부민의 생명선이라고 도할 항만확장문제를 비롯하여 대진남포 건설의중대문제를 해 결함에는 육만부민이 총단결하 여 금후실현운동에 맹렬한 활 동을하기로 만장일치 약속하엿 다는바 금후거부일치의 활동을 매우기대된다고한다

雙山縣水災民에 粟五千石貸與

【奉天】지난해봉천지방에는 홍 며한 대수재로인하야 큰곤난을 밧고잇는 사도선(四洮線) 쌍산 현(雙山縣)하일반농민들에게 현 당국에서는 지난오월이십일부 터 동지 의창창고(義倉倉庫)에 저장하엿든 좁쌀(粟)사천사백원 십섬을 무리자로대부하야 겨우 구제의손이미치게되엿다는바 일 반농민들은 쌍산현당국의인도에 대하야 자못감격하고잇다한다

本社平南支社主催 妙香山探勝團登程

【平南支社發】본사평 남지사주최 제오회 묘 향산(妙香山)탐승단(探勝 團)일행 오십 여명은 방경우(方景宇) 한제면(韓濟冕)이인봉(李仁鳳)두지 사원외 안내로 십일일오전여덟시이십분 본사기(本社旗)를 날리면서 평양역을출발 풍정헷는데 역두에는 지사원 단체 부원들의 전송이잇섯다 자하구강(紫下九江)을 십일일오 전중에 향산착하고 보현사(普賢寺)에 도착일박한후 십이일오 전중에 보현사경내와 상원암(上院庵)의 승경을 탐승 一오 후열시에 귀착하게되엿다 (寫眞은 平壤驛頭의 探勝團)

黃草嶺에山崩으로 咸慈線交通杜絕 十二日까지復舊無望

【咸南支社發】황초령(黃草嶺)에 산붕으로 교통두절=함주군하기 천면상통리 (咸州郡下岐川面上通 里)로 부터 약이십키로가량되는 령지대는 지난십일 오후한시부 터 세시까지에 나린 폭우(暴 雨)로인하야 산이문허저서 도로 를 가로막어 교통은 완전히 끈 어젓는데 부락민총동원과 함흥 택시회사에서 어부 어십여명을 보내여서 그복구에 노력하고잇 는중이나 십이일까지는 복구가 못될것가다한다

地方人事

◆酒井良三郎氏(平壤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吉井勸男氏(金浦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社金浦支局來訪
◆金泰元氏(金浦郡產業技手)新任人事次本社金浦支局來訪

綿絲配給을陳情

組合된줄몰랏다는卅餘業者 大邱府와商議所에

【慶北支社發】경북면사배급통제 조합(綿絲配給統制組合)은 지난 사월중에 결성되여 조합원으로 제도로면사의 배급을 바더나오 는중이든바 어조합의 결성을전 연 아지못하고잇다가 요지음면 사를 구입하려갓스나 벌써부터 표 포제도로 되여 조합발행의 표 를 가저오지안는자에는 면사를 판매치안는다는것을 알고 대경 실색하여 미가입자 삼십여명이 부권업계(勸業係)에 몰려와 조 합에 가입을 요청하여 왓스나 이는 도의방침이니 우리는 어 찌할수가 업다는것을말하여 거 절하엿는바 업자삼십여명을 대 표하여 남산정(南山町) 양태운 (梁泰雲)외 삼명이 십일일 대 구상공회의소(大邱商工會議所)를 방문하고 탄원서(嘆願書)를 제 출하엿는데 미가입업자 삼십여 명은 양말기 삼십여대 군수기 삼십팔대 합계십구대를 가젓스 며 일일 평균 면사수요량이 오십칠다마에 이르는 다량이라 는바 수요량이 클사록 도의 시할수업는 문제로 만약 동업 자에 조합가입을 허락지안흘지 는 삼십여업자백여직공과 그가 족은 전연실업해바릴것으로 어 재는 장차당국이 여하히 처리 할는지가매우주목된다고한다

十人組少年竊盜 光州署서捕盡

【全南支社發】전남 함평군 대 동면 태생 리영석(李永錫)(一七) 을 수반으로 십인조 소년절도 단은 명수부 본정 남해당약기 점(南海堂藥房店)에서 시가팔십 여원의 축음기한대를 지난오월 초순에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부 내 각처 상점 또는 인가에서 닥치는대로 훔치고잇든것을 광 주경찰서에서 요지음 일당을 체 포하야 취조중이라는데 조사에 나타난 건수가 삼십여건에 달 한다고다

路上强盜犯人 一朔만에逮捕

【咸南支社發】단천군(端川郡)의 노상강도가 이개월만에 피체, 단천경찰서에서는 지난사월십삼 일밤생한 강도피의자를 엄중수 사중이든바 지난십일에 단천군 단천면내문리(端川面內門里)리영 환(李永煥)(二三)을 붓잡어서 취 조한결과 그범행을 자백하얏다 그는 그날오전열한시쯤 단천 읍에서 조금떠러저잇는 중산(中 山)〃커부〃에서 풍산군 하남 면포리(豐山郡下南面浦里) 어ㅁ 어(李□伊)를 기리다섯자가 량되는 끈몽둥이로 나타하고 그가 가지고잇든 현금 십삼원을 빼앗어 가지고도망하얏다

同胞總意反映될 協和會(間島省)聯合會

延吉서七月十三日부터開催

【延吉】지난달하순에 선내각현 에서는 협화회연합협의회(協 和縣聯合協議會)를 개최하야자 현내(自縣內)의 오족(五族)의민 의(民意)의 실제동향을 종합심 의한바 그결과는 임이보도한바 어니와 이제이각현에서 심의된 여러의안을 처리하게되는 협화 회간도성련합협의회(協和會間島 省聯合協議會)가 오는칠월십삼일 부터십륙일까지 사일간 연길(延 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엿 다는바 이회합은 민의를 창달 캐하야 만주국 왕도정치의 의 이를선양하려는 정치적회합인것 으로서 즉중십만선민(六十萬鮮 民)의 총의가 반영될것이데여 기에등장될 거다의조건은 어떠 한것들이며 처리의결과는 어떠 케될것인가?에 대하야크다라기 대를 갖게 하는바이며 더욱이 어우십만선민의 팔할이 오십만 조선인으로 제출된의안도 대부 분이 조선인들의 불평과 요망 이라하는데 어로써 그추어가일 층주목을 끌게되는바라한다

洪用漢氏美擧

【楊市】다사도철도주식회사 신의주자동 차영업소(多獅島鐵道株式會社 新 義州自動車營業所)의운전수 홍용한 (洪用漢)씨는 지난십일일 평 북용천군양시각희대회에 입선되 여바든 상품천부를 양시사립보 성학교(私立普成學校)에 기증하 엿다는바 일반은칭송이자자하다

慶北十個簡易校 九日附設立認可

【慶北支社發】소화십삼년도 경 북도내설립 간이학교(簡易學校)는 이십삼개교인대 그중설립인 가가된것은 좌기한 십개교로 지 난구일에 발표되엿다

玉田晋小附設 五柳簡易學校
良洞小學校附設 旺位簡易學校
伊西 〃 七谷 〃
伽泉 〃 部界 〃
牙浦 〃 菱川 〃
匿招 〃 大黑 〃
玉城 〃 九鳳 〃
玉村 〃 德村簡易學校
伊內 〃 雲文 〃
江西 〃 醫溪 〃

劉興山氏의 記念碑除幕式

【碧潼】일즉이 선천신성학교(宣川信聖學校)에 일금이만원을 히 사한광업가 유흥산(劉興山)씨는 벽동사회시설에 십만원 재원코 기가 사십만원 가난한 노인에 게부양료로지사서 주것이 사만 여원광부에게일만여원 실로씨가 사회를위하야 개인을희생하야 하사바는 막대하야 세의자산신 을 찬양하야 마지안는동시에 할 번 당지의사업을 모회사에인계 하고 업무신경으로 가거댐에 그활영원에 기념하기위하야당지 우려권에 기념비를 세 우기로하고 건조중이든바 일에 려비 제막식을 성대이거행하엿 다는데 제막식에참례하엿든 씨 는 그의친촉대표 유재원(劉載 元)씨를 통하야 씨가 일찍이성 공한면동군을위하야봉사 으로 최선의힘을 다할것을 맹 하엿다한다

輸移入植物檢査所 元山에도新設

【元山】종래수이입식물검사(輸移入植物檢査)는 종류와 검사기 간에제한을두엇서 실시하얏스나이 러한제한은 조선농산업의 발달 을저지하는일인(一因)이된다는견 지에서 총독부에서는 영단적으 로 종래의제한을 전연철폐하야 금후장유로 수이입을 하게되엿 다고한다 그리하야 단추이검사 는 조선의 산업발달및 조장적 으로 그중요성이 증가되여가고 잇거니와 원산에도 그검사소를 설치하기로되여지금착공중이로구 월중에는 준공을 보리라고하는 데 어검사기구의 활충과 더부러 금후 농산업보조장에 일단의 박차를 가하게되리라한다

中等蹴球豫選經過

【平南支社發】조선축구협회평서 지부주최 제이회 중등학교축구 선수권 평서예선대회는 십일일 오전구시부터 참가교 숭인상업 (崇商)광성중학(光成中學) 제이 중학(二中)동삼교선수의 열장식 의뒤를이어 숭인상업(崇商)대제 이중학(二中)의 일회전이 주심 (主審)박영철(朴永哲)선심(線審)

中滿의兵站部로서 工產、貿易飛躍可期

平元、滿浦鎭、中滿鐵三線의輸血路는 元山商勢圈에大革命

元山篇

평원선과 만포선진로는 어와 연락할 만주국의 중만종관철 도의개통을 통하야 그판토한 인원산항은 내선만의 병참부 (兵站部)로서의 지위강화와더 부러 대비약이 약속되여가다 즉전경(全經)오백키로에 달하 는평원, 만포진양선의 연선일 그배면에 무진장한 지상지하 의림산, 광산의 재원개발이활 발하야지며 동시에 단축된수 송로에의하야 전날의 교역관 게에 변혁을이르키며 종래경 원선을 오회하야서 만이전속 한든 원산항과의 교역이번창 하게될날도 수년후로 림박하 여간다하게스다 그러면 이철도 의 종단항이밧는바 장래영향 은 어떠할가?

연선사십여만에달하는인구가 갖고잇는 방대한구매력은 자 원개발에의하야 산포되는 노 임의혜택으로 일층소비시장으 로서의건전한지반을 보전하거 될것이니 이방대한 소비시장 을 향하야 원산상권의 공격 적진출이 잇슬것은 필연적인 사실일것이다 그리고 개척되는 자원이 원산항을 거처 일본내 지로 또는 북조선에로 허터 지게될것도 명약관화한것이다 더구나 중만종관철도를 련락 하는때서 만주의 풍부한 농 산물과 공업자원이 원산항에 집산하게되며 동시에 만주대륙 에진출하는 일본내지의 상품 은물론 원산의 수산가공품기 타가 이세선(三線)을 뉴대(紐 帶)로수송될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원산항이 가진바 향만 과지리적 우세의 소산이라하 겟다。

×

다시 평원 만포지량선 연 선일대의 물자수급관게(物資 需給關係)를 검토하야 원산 항의 존재가치를 강조하야보 기로한다

이지대는 산간벽지가만코평 야가적어서 농산물가튼것도쌀 (米)과조이는 수용을 충족하지 못하야 다른곳에서 공급을맛는 형편이며 또한 지리적제약을바 더 근대공장공업이란고는 소주 (燒酎)양조를 내여노코는 몰만 한것이업고 다만 마포(麻 布)명 주류의 가내공 업품이 잇슬뿐 이다 따라서 면직물, 인 견직고무화, 밀가 루, 해산물, 식염 장유, 청주, 기타 음료, 건축재료인 도단, 세멘트, 금 속제품석유, 비료 기타 일용잡화등은 두공업도시 또는 무 역도시 로부터 공급을 밧는 현상이다 이들의의 공급지중에서 처인 이 제 일입성한곳은 지리적으로 접 근한 평양, 진남포, 경성이 고원산은 련관한 매곳을 내 여노코는 경성, 평양을 오회 하는 때게상 수산물, 석유, 원산은 거리에잇서 삼분지일 만포진양선이 개통되는날에는 곡류외는별문이엇다。 그러나 예정과가티 평원,

어 단축되며 수산물은 물론 조선석유회사와 라이징선의석 유(石油), 인견, 면포, 일용잡화 등의 취인이격증하야저서 병 참부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

원산은 남으로 경원선, 북 으로함경선, 동으로 동해안선 서으로는 불원에개통될 평원 선이잇서서 마치방사선상(放 射狀)을이루고 또 일위대수 (一葦帶水)인 리일본각지간에 회다항로와 판관관신(阪神)경 빈(京濱)기타의 두요지에 정 기항로를 가저서 조선교통상 의 중추지에 서게되며 그수 송이 편리하다는사실과 배후 지에 풍부한석탄광물등과 전 력 공업용수등을 가지고잇다 는점은 무역도시 원산의 공 업화에 박차를가하는 원동력 이 될것이다 이러한 원산이 옹것을 내다보는 리유로구에 영리한 기업가(企業家)들은쟁 선하야 선산에 진출하는데수 년전만해도 양조, 제재, 정미, 조 선등은 해산물가공제조등이잇 섯슬뿐이엇든것이 지금에는 각 가운 문천천내리에소야전(小 野田)세멘트공장 문평에 라 이징선석유공장 그후에 조선 석유공장 최근에는 천내리북 선제강소(北鮮製鋼所) 문평의 주우제련소의 준공을 보앗고 또한 공사착수중의 것으로는 철도국의 차량공장 석탄액화 공장 모화학공장 급 평원선 으로부터 재료한 무연탄적출 장급 련탄(煉炭)제조소등이게 획되여 점차 그실현을 보게 되엿다

×

여와가티 원산은 삼십년래 의 숙망을 달성하는가온대서 산업, 교통, 금융계의 활황을 보게될것이며 동시에 중소상 공업자의 신규개업을보아 종 래의 수산도시, 상공도시에서 과거의면목을 일신한상공수산 도시로서의 웅보를 내여드되 게 될것이다 그리하야 만범 한 서조선과 만주국의 대서 장에 상권의신장 확대를 화 보하여 영산무역도시로의 지 반을 공고히 닥는일방 전기 연선에서 보내는 물화를 란 토하야서 노항원산의 대비약 을 패하게 된것이라 평원선 이야말로 원산을 살지게하고 국세개척 강장제의 수혈주사(輸血注射)라고 아니할수업다(계속)

(寫眞은 元山에 山積한大豆一)

(元山特派員下龍甲記)

長篇小說 林巨正 【116】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八十四)

『이놈을 목을 느리구 칼바더 란』

꺽정이가 호통을 질르며 달 려드는길로 관속서넛을 꺽구려 트러서 오래동안 괴망을 보지 못한 장광도에 고사를 지낸다 이판속때를 지휘하든 병방이 칼 을 둘르며 꺽정이와 마주찻우 러 내닷는데 칼과창을가진 장 교와사령들이 병방을 조력하랴 고 전후좌우로 꺽정이게 대들 엇다 칼잡이 칼로 창잡이 창 으로 질르랴고 여럿이 엄시에 약 소리를 첫때 꺽정이는 어 느름에 레빠게 뛰어 나가서서 꺾껑웃고 잇섯다 결술 몰으는 칼잡이와 창법 몰으는 창잡이 자 대적하려 대드는 것이 꺽 정이 맘에 갓지안흔는 것이다 병방이 꺽정이의 놀림을 밧고 분하야

『이도둑놈아 네빼지말구 내칼 을 바더라』

하고 소리를 질르며 쫓차왓 다 병방은 꺽정이의 장광도가 채자 짧은것을 넘보고 멀직이 서 긴환도를 아프로 내들고차 점차점 나오며 얼른다가 별안 간 정면으로 나려첫다 꺽정이 가 몸을 비키어 활든날을 여 오로 흘리고 다시 팔어드러갈 사이 업시 뛰어들어가서 한칼 을 먹엿다 병방이 외지에서 가 슴으로 엇비슷 칼을 맞고 땅 장에 쪽 꾸그러젓다 여러명속 들은 모두 와하고 도망질을쳐 다

꺽정이가 뒤쫓든 명속들을 리친뒤 일행을 쫓차와서 지침 업시 망복산으로 나오는데 길 에서 날이 밝앗다 백손이가 꺽 정이 웃소매에 피가 내 뱃것 을 보고

『아버지 팔에 피가 낫습니다 웬일이십니까』

하고 물어서 여러사람이 배 로소 꺽정이의 회살마진것을알 엇다 꺽정이가 병방이하 관속 들을 죽인것은 이야기하얏지만회 살마진것은 상처가 대단치아나 하야 이야기도하지아니하얏섯다 망복산에를 오니 벌서 조반 먹을때라 드리닥치며 곳 조반 들을 먹고 조반먹은뒤에는 별 별이 작작궁리들을하얏다 하루 낫 하루밤에 어쌔리길을 오고 또 적은접전이나마 접전을하고 온까닭에 평생에 피로(疲勞)란 것을 몰으는 꺽정이까지 소흥 와라

『냉수좀 떠오라게』

『양주집할 냉수는 먹지못하는 냉순가』

『잡수실라면 더운숭늉을 갓다 들리라고 여쭈바세요』

『냉수가 조흐니 냉수를 떠오 라구 일르게』

소흥이가 친히 몰그릇을 생 반에 바처가지고 나와서 꺽정 이아페놋는데 꺽정이가 먹여까 지달라고 업을 아하고 벌려서 소흥이는 우스며 몰그릇을 입 에 대어주엇다 꺽정이가 뻘떡 뻘떡 몰올드리키고나서 소흥어 의 손을 가르치며

『그 손에 무든것이 무어신가』

하고 물으니

『가루예요』

하고 소흥이가 손에무든 가 루를 부비엇다

『무슨가루야』

『국화전좀 집엇세요』

『국화전?』

『오늘이 구일이예요』

『그래 구일이라구 오늘은 국 화전 절심인가 만히 먹게』

『우리는 벌써 점심들 먹엇는 걸이요』

『그럼 저녁사어들루 먹을작정 인가』

『우리가 먹을라구 만든것아니 메요 여러분들하구 가치잡수 세요』

『국화전은 언에서 논하먹구 우 리는 국화주나 해주지』

『국화주도 해놧세요』

『그럼 먹어야지』

꺽정이가 벌글 내다보며

『게 아무두 업느냐』

하고 두서너번 소리를 첫다 평시에 갓가이서 도는 신불출 이와 곽오주는 어데가서 잠 들을 자고 아래도리 일을하는 졸개두엇이 진대답을하며 들어 와서 대령하얏다

『이두령 배두령 서종사 세분 다 오시라구 그래라』

하고 졸개들더러 말을 일러 내보낸뒤 한동안 지나서 세사 람이 가치와든데 서림이는 어 떠케 몸이 고달픈지 눈까지 되어섯다

『서종사는 석간자계 가만두엇 드면어 불엇군』

『악가 주무실때 빠게 한번와 다갓는걸이요』

『왜 자지안쿠 돌아다녓소』

『현감이 뒤일을 어떠케하나 엽 보하여 보내는게 조흘듯 해서 엿쥐보러 왓섯습니다』

『보내지』

『이두령게 말슴하구 보냇습니 다』

『현감이 뒤일을 어떠케 꾸미 거나 우리는 천석꼴루 단쥐 하는게 조켓지』

『제생각에두 그럿습니다 그러 나 어떠케들 하는것을 알우 안첫든것이 조치안습니까』

『웃네 사람 보내건 잘해소』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듯이쑤실때……노ー신
간간이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숫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면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國藥房에도무러보십시요

이商標에注意하시압

노ー신

定價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三五三番

ビクター蓄音器 箱型四十五円より各種 手提型二十五円より各種
コロムビア蓄音器 箱型四十五円より各種 手提型三十八円より各種
各種在庫豊富 カタログ進呈
地方御注文は前金三割以上申受けます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話光化門四八番 振替京城二二七六六番

諸鳥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三九〇

エキカトール 에 가 도 ー 루
家庭用芳香强力殺虫液

파리、모기、빈대、구뎨기、진득이等을根絶해서惡疫을防止하고室內를淨化하야衛生을지키라!

安住かとり線香本舖 大阪 安住大藥房

H—13

肺病全快法

사람이肺病에 걸렷다하면死刑宣告나바든것처럼 悲觀해서, 藥과醫械만으로 病을治療하려고한다 그것을밋기로 無効한藥과醫械를販賣하기도하고 여러가지廣告로弱한病人을 弄絡하는商人이만타 醫師가 아모리 거짓말을하여도, 藥商이아모리 甘言利說을 내거러도 속어서는 안됩니다 結核菌을죽여서 肺病을根本에治療하는藥과 注射와 醫械는 아즉 世界어데서도 發見되지못하엿습니다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감으로써 治療됩니다。 若草가 맹動하는土壤, 淸澄한물, 淸潔한空氣, 끌고루비초이는陽光, 自然의草根木皮가에는 肺病者를救하는偉大한 慈愛의손이 펼처잇습니다。

그릇된養生法

治療할수잇는肺病이 웨안낫는가? 그것은 貴下의養生法이 잘못되엿기때문입니다。 貴下는 日光療法을 잘못하고 엇지안읍니까, 自然을 防害하는藥과 醫械를쓰고잇지안습니까……。

正當한療法

肺病으로 알른이는 只今곳 『朝鮮日報で見た本下さい』라고 써서葉書로 左記의寺로 보내주시요。 釋迦님의金言을基礎로해서正當한治療法을 가르친, 松永佛骨師著『治療の原理』와 藥草療法『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

無料送呈합니다

빨리 이 가르침을바더 알는몸에생각만해도 그리운 元氣잇는옛날로 回復되여주십시요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神經痛·류마치스治療劑

ネウロジン (金剛)

(네우로진)

本劑는五%부로ー므마구네시움을主劑로하고此에純葡萄糖을高張性으로配合한無色透明滅菌靜脈注射液이다

【適應症】神經痛、류마치스、肩痺症、腰痛、神經衰弱、氣管支喘息、胃痙攣、姙娠惡阻等。

【包裝】一〇cc五管入、二〇cc五管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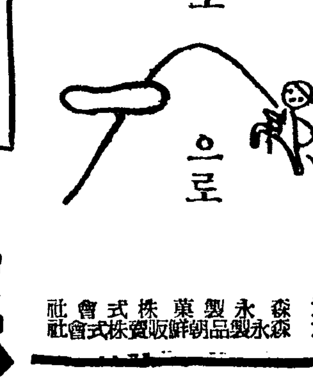
各地藥店에서 買入하실時는 반드시『金剛製藥 네우로진』이라고指定下命하십시요萬若品切中이면直接本店으로用命하야주십시요。

元賣發製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宮內省御用達

賣行·品質 東洋一! 類似品이업지안사오니반드시森永品이라고指定하여주십시요

大瑞히經濟的이오滋養이豊富하고衛生的이라는點에서發育期에잇는아기네들에게는업서서는아니될必須品으로생각합니다반드시愛用하여주시기仰望하나이다



森永 詰合 ビスケット
모리나가 비스켓도

製造元 森永製菓株式會社 販賣元 森永製品鮮滿販賣株式會社

學生態度에對한一考察

東大 朴肇英

能動的인點으로 動物과區別되는 우리人間은 自己가 如何한 立場에잇스며 또무엇을 하는것이 올흔가를 恒常檢討하여야意識的行動을 할수잇슬것이다. 故로 學生의立場에잇는 우리들도 學生이란 무엇인가를 檢討하는것이 우리들의 生活態度를 決定하는데 잇서서 重要하다고生覺한다. 그러나 이問題는 簡單치안흔故로 우리學生全體가 서로 論爭하는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生覺하여 最近東京에잇는 學生의 一部에서 提起된『學生的態度』란는 問題를잠간 紹介하려고하는바이다.

첫재 學生의目的은 배움에잇슬것이다 배움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시키기爲하야 學生生活에 必要한手段은 社會的으로 保証되여잇는수도잇다. 아무런 모르는것을 알려고하는것이 學生의 根本的任務임은 틀림업다.『學生은 모르는것이 羞恥가아니다 알려고 하지안는것이 羞恥다』 이것은내가 第一사랑하는 文句이다. 勿論 우리는 알지 못하는것은숨표다. 그숨은無知를打開할려고하는것이 우리學生의英雄的役割일것이다. 故로 學生服 學生帽를着用한學生이 眞實한意味의 學生인가 아닌가 하는 標準은 그사람의 智識의分量의 多少에 잇지아니하고 그사람이 알려고 努力하고 잇는가 안는가에 잇다고생각한다. 이根本的 命題를 二三의例를들어 좀더具體的으로 檢討하여볼려고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世上에는 理論대로는안된다는소리를 듯는다. 이런 人生觀을가진學生들의 萬事에適應한듯한態度에 첫재로嫌惡를 느끼는바이다. 우리가 學生的立場에 서잇는以上 이런問題에 逢着할때에는 當然히 두가지方面으로檢討하여야할것이다. 첫재 現實에잇서서 理論的으로는 正當한行動이 實行하기困難하다면 理論그것에 誤謬가잇지 안은가를再檢討하여야할것이다. 實로 理論이 正當하다는 唯一의證明은 實踐에잇는以上 우리가 困難에 逢着할때에 理論을 再檢討한다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일이다. 人類의 科學的全智識의 歷史的發展은 實로思惟와 行動의 相互止揚의 結晶이다. 그리하여 理論의矛盾을 發見할때는 우리의智識은 그만치 노픈段階로 發展한다. 다음에는 그困難의原因이 現實에잇지안는가를 檢討하여야할것이니 그原因이發見된다면 또한우리의智識의向上일것이다. 故로理論無用論者의 非學生性은 學生의生命인 智識의發展을 阻害하는意味에서 그와가튼學生이 實在한다면 甚히 슬픈同時에 이러한사람이 萬一先輩라는立場에서 自己의 人生觀을 比喩할때에는 그끼치는 害毒이또한不少할것이니 참으로한심하다고 生覺한다 또한가지는 所謂信念이니 어떤일을 그理由는모르되正當하다고確信하고 熱情的으로行動하는部類의사람이다. 이것은그行動이 客觀的으로보아 正當할때에는 그情熱은 貴重한것이다 그러나 日常이런習慣에 저즌사람이 한번 잘못된行動을 外部에서 要求할때에 그와가튼 信念的行動을 한다면 如何한結果에 到達할가는 明白하다. 故로 學生은 恒常科學的態度로 그內容을分析하여 理論的으로 그正當性을 發見한然後에 信念과情熱을 가지는習慣을 養成할必要가잇다. 純全한信念으로 偶然히 客觀的으로 正當한 行動을하여 成功한者와 理論的으로 分析하여 그리고 힘이不足하여 잘못된結論에 到達하야 實地行動에잇서서 失敗한者를 比較할때에 우리는 後者에對하여 無限한同情을 느끼는바이다. 實로 前者는 發展이업고 後者는 發展할려는契機를 包藏한點이 決定的差異인까닭이다.

以上과가튼『學生的態度』의規定은 平凡하며 또消極的이다. 個人의能力 環境時間에는 制限이잇다. 一定한方針업시 알려고만하면 眞理의把握은커녕 混亂에 빠지기쉬울것이다. 故로積極的으로 우리의 目標에 到達함에는 正當한 方法論이 必要할것이다. 여기에서 『學生的態度』를 但只學生의規範에서 버서난 學生은 不充分하나마 檢討한 셈이다. 學生이잇다면 어도 『學生』이되여주엇으면 하는 消極的要求에 잇는것이다. 그러나 學生의積極的行動의 指針도 이規定에서 버서나지안흘뿐만아니라 오히려 이『學生的態度』를 基礎로하야 一層發展시켜具體化하는데 잇다고生覺한다.

그러면 우리는 如何한方法論을 세워야할가? 이 第一重要한 問題는 우리 全朝鮮學生이 各其恒常 그解決策을 生覺하자고 提議하는바이다.

그리고 將次 우리들의 活躍을 苦待하고잇는 人類社會의 根本的問題를 解決하기爲하여 우리는 研究하고 討議하고 思惟하고 論爭하여 眞實한學生이되자. (完)

夏期休暇를압두고

鐵原明新中學 金亨三

먼山의아스랑이! 그리고 파릇파릇한새싹의 嬌態도 벌서옛일이 되고 그빗나든 百花의 한도막으로 사라저버리고 압山과 외나무地는 鬱鬱蒼蒼히 욱어진綠陰芳草의 世界로化하여 버리고말엇다.

지난겨울까지도 다ー말러빠진 植木이든것이 至今은 언제내가 枯木이엿든듯이 鬱蒼한威勢를뽐내고잇다.

그리고 그綠陰속에서는 飛泳하는 各色昆虫과 謳歌하는 各色鳥類들의 閑雅한멜로듸가흘러나온다.

그리하야 綠陰은 各自業務에 시달려 極度로疲勞한 우리人生에게 唯一한慰安을준다. 特히學業을硏磨하는 우리들에게 잇서서는 이여름 이綠陰의 恩澤을 입음이 적지안타. 果然綠陰은 夏節의代表的存在다.

萬若綠陰업는夏節이라면 어느뉘가 夏節을조타하리요? 그리하야 威勢堂堂한綠陰은 우리들의 젊은가슴에 勇氣를부어주고 躍動케한다. 그리하야 深山幽谷의 神秘로운自然!

或은 漠然한 大海에 蒼波를 헤치고 마음것 뛰놀고시픈 衝動을 것잡을수업다. 그리하야 열마남지안흔 夏休가 一刻여 千秋가티 長久한듯 지리한感을 느끼며 안타까웁게 기다려진다.

때때로 지리한 敎授時間이면精神만은 벌써放學이나한듯이 山으로 바다로 旅行하고잇다. 그러하야 아득ー한大海에두둥실떠서 놀실놀실 춤추는蒼波를따라 가티 춤추는나!

다음은 山高水麗한 深山幽谷에 神秘로운 自然을 마음것探索하는나! 그다음은 險山峻嶺으로 一大冒險을 演出하야踏破하면서 씩씩한 나의勇姿를뽐내는나! 또그다음 무더운 여름날에 酷熱도 一蹴하고 구슬가튼 땀방울에 잠뿍저즈면서 한 學期間硏磨한 억세인 팔뚝에괭이를 붓잡고 씩씩하고도 힘차게 휘두르는나의 勇姿! 等等의 幻想이 一幅의映寫幕과도가티 疲勞한 머리를 휘휘스치고지나친다. 果然나의 心中에는夏休를利用하야 活躍할理想이 그數를세일수업다 文學!運動!音樂 藝術!各方面을 생각하는 나의理想은 너무나넓고근지도모른다.

그러나 나는 꼭實現할決心을품엇다!

그러타! 꼭實現될것이다. 그리하야夏期休暇를압둔 나의心境은 苦待苦待하기에너무나焦燥하고도안타까웁다.

어서速히 夏期休暇가 되엿스면ー하고……

『移秧』

滿洲商業 四年 宋在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버지때도 할아버지때도
이들판 이논에서다。
추수한단 더버라서
담배한대 안피우고
모를심고 김을매고
가을에는 긴한숨을 면치못햇다。

×

아츰에먹은 한그릇보리죽
삭아진지 오래다。
점심그릇은 언제나 오나?가망도업다。
허리는 끈허질듯 압흐고
五十平生 배곱흔 한숨이
엄청나게도 깁히배속에서나온다。

×

딸년, 춘삼이도
나이 벌서이십이것만
해마다드는 흉년에
시집보낼 생각도못하겟다
올가을엔 어더케든지 치워야겟는데
초조한 한숨이
한수먹은 모쪽어를
가만히 휘날닌다。

黃海橫斷記

咸興永生中學 劉瑾相

뛰ー陸汽船이汽笛을내며 물결을헤치면서 움즉어가始作하엿다ー 아침八時쯤! 아아참조타조하 어려한퍼런蒼海우에떠서 파도가船側에부디처 하얀물방울이 되여 헤여지는것을 몰줄이야!一步一步海邊을떠나 閘門의入口에 드러스게되엿다 이러한橫道의 閘門으로늘어서 閘門을지난우리들을시르는배는 船梁에서 푸르고 넓은바다우에 委體를떠우게되엿다 仁川市街 月尾島ー이러한背景을등지며 一路大連을向하엿다 점점朝鮮을떠나 他國에가다고 生覺하니 마음이맑스러허 두근두근한다。오늘은 日氣가매우 淸明하여 春風에도출단船이 이쪽저쪽에떠잇다 仁川巨濤를지나니 仁川은 全然보이지안는다。여기서부터 波濤가점점크게되엿다 때뜻한햇빗미테 海水가굼실거리며 몰려처오는것이 빤짝인다。그우를 갈메기가 물방울을스치면서 배를 따라오나 깍!깍!갈메기가 우는 소리가 어쩌지 異常하게들린다 다만海上에는 우리들外에는 갈메기뿐이요 갈메기가우리들의同伴이다。

가면갈수록 四方이 다ー바다요 섬이란하나도 보이지를안허요 아마 生覺컨대 黃海바다가운데에 드러온 模樣이다。呵呵 出帆後三時間이나 되는데 黃海복판에 올리는 萬無하지만 우리들의 生覺이 그러타。우리들 모두가 三十分以上 배를타본일이업스니까。배가달릴수록 方向이 不明하고 아까따라오든갈메기조차 자최를 감추고 海上은 우리들하고 하얀물결밧게는보이는것이업다。十二時쯤 파도가 너무심한탓인지 何如間 끔이아프기란까닭인지 처음으로 배를에船室에 들어갓다。本來汽船이 처어 船室이 조흘리는 萬無한데 우리들은 또 船價을 차게한탓으로 船尾에방을잡앗다。學校에서는 ー아니ー 陸地에서는 自由스럽게뛰며놀든 血氣旺盛한健兒들이 이러한배에서는뛰며놀수도업고 이쪽저쪽 구석구석에 덩굴덩굴굴너서 흥打鈴을하고잇다。조곰잇스니 晝食이드러왓다。食事를마튼사람ー아니 船員全部가酒人이므로 말이잘通치 아니하나 何如間밥상이니 밥먹으란줄알고달려들엇다。그밥통을 주룩주룩 홀는소리 수까락소리ー모두가요란하다。적은 한방에 數十名이드러부터 한거번에먹으니 그요란하다는것은말할수업다 市場의 四寸이라고나할까?ー呵呵ー食事를마치고 甲板에 올랏다。넓은바다우를 달리는배, 배우에서望遠鏡을겨저보는나 나는 혼자 시쪽시쪽우서댓다。조곰잇다 구석에서는 十二,四名이 구르푸를지어서 座談을하기始作하엿다 조곰잇다가『道로리ー』가 홀러왓다。ー『어ー디로가야 어디로 요 홀러가는게집애 담배리손에 들고 울며웃는 내신세, 내일은 뭇지마소 』는돌라요 울어라 구리넷 춤이나마출거 어나』처조흔노래는아니엿다。그러나 이無味乾燥한방에서는 即時로 人氣를끌엇다。모두十九歲、二十歲可量된놈들이라 暫時後에 室內가 깨여지는듯하엿다。모두 興에드려서 어디가어딘줄을몰랏다。놀애로노랏다。그校外生活의 自由를 좀맛보본模樣이다。그러나! 조곰잇더니 문소리가낫다 웬걸!ー모두가 쥐굼을찻지못하여 후흥홍喜한다。나도 한참合唱랠에 드럿다가 적적한 模樣에머리를 들어보니 정말?ー 아아 어찌할가 호랑이야ー B先生이야 나도 역시 쥐굼을 찻지못하엿다。아ー萬事休矣。B先生은 木刀를 손에쥐고 눈을 부릅든다。얼굴을 울흘거리면서 찬찬히 본다。第一먼저 合唱隊가어디로 갓는지?그림자도업서。『야, 이놈들이 게무슨일이냐? 내가 注意를 그러케주엇는데도 응?船客에 防害가아니야。嚴命을 어기면 알것지!』先生의소리다。조곰잇다가 先生이 나갓다。『후ーー! 우리들은 船客이아닌가? 海上에서는 암만 떠드려도 咸興에 다시 돌려보내지는 못한다。떠드려라』말로는 장하여도 속으로는 어룸덩이야。『嚴命을 어기면 알것지!』하는말은『嚴命을 어기면 咸興에 돌려보내겟다』는말이야。조곰잇스니 이쪽,저쪽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난다 무서워 서자는 模樣이야。밤에는한두船室이 흔들리기에 나는待合室에 올라갓다。待合室은 우리들잇는 데보다 말할것업시조타。이쪽 저쪽긋순이노여잇다。나는 긋순을 한군데다 모여天己、毛布를 더펴다。박게서는 파도소리가十二時쯤의 기운을돌고 들려왓다 翌日 七時쯤에 이러나니 몸이 막상덥렷다。밤잠을 잘못잔模樣이로군 八時쯤에 甲板에 올르니 섬이 이쪽저쪽에 보엿다。운 模樣이다。날이좋렷다가게 이기始作하엿다。저쪽에燈台가보인다。아아 인제는 大連에가까웟다。아아 참자미잇섯다。咸興가튼 울홀속에서 이런말은 大海를 橫斷하여 一刻一刻他國에 가까워지노나。몃十分잇스면 他國땅을볼것이다。아아 우리들은 一刻이거니외 주저어지를 바다를 달렷다。우리들은갑자기에 바다의 勇者가되엿다。참感慨無量한橫斷이다 船員들은 바쁜드시 어리저리뛰어다닌다。汽笛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아마 汽船도 기뻐하는 모양이야。『나는 黃海를 달렷다』하는드시。조곰가니 이쪽저쪽汽船이 錨를내우고 碇泊하고 잇다。섬이 점점 머러진다。저쪽에서 갈메기가 훨훨나타온다 나는 望遠鏡을 꺼내여 눈에 대니 아아, 보인다。아스쿠러한大連。우리들은 甲板에서 뛰여다니면서 조흥주엇다。처음드디는 他國땅을 어떠케밟을까? 거기 사람들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가?

한 三十分後에 우리들은 完全히 大連에 올랏다。萬歲!

試驗

五山中學 美致狂

試驗!
一學期의 마즈막이며
今年의 마즈막試驗
번작고뎐 여페房도
죽은듯이 고요하고
거리의 騷音도 끈첫다
고요히 冊床아페 안저
沈着한 마음으로
幾何 英語 化學을 풀고잇지요!

풀기힘든 幾何는
가신님의 誤解이며
오몰꼬몰 英語는
님이가신 길이고
變化만흔 化學은
갈산님의마음이다

밤!
悠바게는
때안인 찬비가나립니다
낼모래가 설날이고
한밧눈이 퍼부어야할 겨울에ー
비와눈은 엇재오고
무엇에必要한가를 말하는
物理 地理 農業은
來日칠 試驗
마즈막날!
가신님의 一動一靜을찾고
區分區分을 解剖해서
마음쪽 白紙우에
쓴어야시 記錄하는
歷史 生理 作文을
試驗치는날!

憧憬하던서울

漢榮高等學院 金聖翕

내가서울을 憧憬하기는 바로 普通學校卒業한 十五歲때 느진 봄날이엿다。서울간 동무안테서 入學하엿다는 편지보고 나의가슴은 뛰놀든듯이 서울을 憧憬햇다。날달리 不遇한環境에잇는處地라 網眠히 서울가게 못되엿다。달밝은밤에는 江가에 나가 天使의 머리처럼 느려진버드나무미테 언저서 흘르는 물우에 떠러지는 눈물을 바라보고는自身을 慰買한적이 한두번이아니엿다。

작난이나 몹시한날은 서울간 꿈을 면번식 꾸엇다。學帽쓰고 아스팔트 길우로다니는 동무의 模樣도 그려보앗다。그리다가 物質의 恩澤은 몹입은 몸이나마 熱誠잇는아버지때문에 憧憬하던서울行이 決定되엿다。靈北이 아침저녁은쌀쌀한 初冬어느날 偉大한抱負를품고 情든故鄕山川벗들을등지고떠낫다。

넘우도고생하던이지 어마우에 주름마는 늙은貧農인아버지 無知한農村의 女子건만 家庭에서는 다시업시 忍實하고 나에게는 以上업는 親切한어머니를 離別하는나의마음은 떠悲痛하엿다。눈물때문에 情든내故郷이 오막사리진山川조차볼수업섯다。寂寞한農村이 停車場에 웃둑서잇는 가엽슨驛夫의 模樣이 마지막보는사람이엿다。南行列車는 넓은 平野를달니고 험멜도돌고 山골을 지엇다。

젹어을 달녀서 憧憬하던서울이 漸漸갈가워진다。잇든날아침의쇽은 驛夫의소리로京城하고의 案內로 地下道을것처서 驛前에나서다。달니는 自動車電車 소리사람의때 平和한 農村에서 자라난나에게는 한무서움이엿다 동무의 案內로 貧民街인 어둠컴컴한下宿집한구석에잇게되엿다 華麗한都市의밤은 燦爛한 五色등불이번쩍어고엇엇다。몃칠도라다니다가 열러가 생겨나제는勇氣되고 밤이면夜間中學에 다니게되엿다。

그러나 내게는 정적平和한農村마을의 靑年들의 健全하고미듬성엿서보이는 그모양이 그리워진다。

그다지도 憧憬하던서울!그러나 나는내동무 아무에게도 나처럼 서울로 오라고 勸하고십지안타。

學生作品募集

全朝鮮男女學生諸君! 諸君이 家庭에서 學園에서 날로 배움에힘써 게을리하지안는것이 諸君의 가장 질거운 義務인同時에 또한 그努力의 結果가 우리文化에 가장 큿다란 寶石이될것이라는것을 생각하면 實로 우리의 喜悅은 크다고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어러한 輝煌한 寶石을 가진 諸君이 그寶石의 精工과 硏磨에 多少의 도움이라도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諸君에게 提供하기를 아끼지안는것이다.

그래서 本社에서는 이번에 다른紙面을 割愛하고 特히 學生諸君을 爲해서 毎週月曜日마다 온전히 한面을 바치기로하엿스니 이야말로 諸君의 獨擅場이라 家庭에서 學園에서 배우는 學業과 知識을 가장 自由롭게 活用할 機會를 다투어가지기를 바라는바이다.

募集規定

應募資格 全朝鮮男女中等學校以上專門大學生

募集原稿 研究論文、實驗報告、隨筆、紀行、書翰、콩트(以上四百字原稿紙五枚內外)新詩、時調、漫畵、學園消息(以上長短隨意)

賞品 毎一人一回分에 對하야 揭載되는대로 薄謝를進呈함

其他注意 原稿末尾에 반드시 所屬學校名과 氏名을 明記하되 匿名은 無効로함 無常時로 어느때든지 投稿해도無妨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東西對抗獵奇座談會
出席人士 廉秋岡 朴慶浩 宋錫夏 申鼎言 本社側 咸大勳 金來成

女流作家가꾸는여름밤의꿈
文壇夜會 毛允淑
處女의魂 崔貞熙
笑話 아조자미나는우숨의이야기가참으로만슴니다 웃지안코는 못배길것입니다
탭딴스修業途程 李俊喜
連續野談 行金花八植 金濯雲
漢末妖姬趙飛燕 車相瓚
生長發展하는朝鮮演藝界 朝鮮映畫會社A記者 劇研座와新形態 B記者
散文『샘』 毛允淑

七月詩歌
우리들의七月 金岸曙
꼿지코그늘진날(外一篇) 金珖燮
깨여지는꿈 朱壽元
韓末天主教殉教悲話 盧春城
故朴龍喆兄哀詞 金珖燮
朝光타임스 자미잇고 實益잇는朝光타임스를 빼지안코 朝光讀者에게 無代進呈합니다

怪奇体驗記
△昏睡五日半 金東仁
△哀史의少年 李石薰
△夜半의夢魔 安懷南
△괴상한소리 朴魯甲
△怪美人 車靑吾
△怪奇千萬 方仁根

港口로맨쓰
情熱의港口統營 柳致眞
새로운海州港 崔昌圭
群山港의今日 蔡萬植
눈물의麗水港 金文輯
南浦港의追憶 咸大勳
돼지순대와元山港 李善熙
清津港 毛允淑
城津港의追憶 崔貞熙
白日의長箭港 李軒求

山에서바다에서어든이야기
▲山어제트린로맨스……金南天
▲넘은風景속의少女……白鐵
▲海邊日記抄……李雲谷

畫報
▲李喜俊孃의포ー즈……
▲렘빤쓰의어모저모……
▲長壽山石洞亭……
▲大雄殿과江水……
▲夕陽明水堤……
▲望鄉 薔薇꼿……
香氣런時節……

表紙 八仙花·崔根培

朝光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七月號 四十錢

支那語講座 2回 張志暎

天才提琴家 安柄玿氏對談記 K記者

人氣歌手의心境을들음
▲二八靑春의黃鶯聲 朴丹馬
▲네온거리에흐르는노래 黃琴心
▲溫泉場에깃드린情緖 朴響林
▲哀愁의눈물지으며 南一薰
▲純情無限의人生 張世貞
▲歌手生活六年間 李蘭影

◇戰爭과食糧 李健赫
○昨今의政局과新黨論擡頭 溫樂中
◇체코問題와歐洲政局 金翰容

七月創作
短篇小說 두꺼비가먹은돈 玄德(鄭玄雄畫)
短篇小說 小毒婦 白信愛(崔根培畫)
中篇小說 明暗譜 嚴興燮(崔根培畫)
長篇小說 天下太平春 蔡萬植(金熊超畫)
歷史小說 帝星台 金東仁(鄭玄雄畫)

戰時下의經濟座談會
出席人士 金圭冕 孫完榮 李東善 洪祀裕 李…… 本社側